

로의 부르심'이다. 이 '개조'는 20세기 가장 중요한 기업의 영향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것은 인간 영혼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진 개조이다.

더 이상 소경이 아닙니다 (Blind No More)

앤 마사
(Martha Anne)

여기 안경끈 사람이 나 혼자 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꽤 많은 사람이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은 렌즈를 끼고 계실테고요, 그런데, 제게 혼자만 안경을 끼던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나는 국민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몇 주 동안이나 눈이 나빠 눈을 가늘게 뜨고 칠판을 보다가 필기를 잘못하곤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부모님께 말씀드려 눈을 진찰받으러 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진찰을 받으려면 가까운 도시로 나가야 했기 때문에 수주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기간에 선생님께선 나를 앞자리로 옮겨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평소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특히, 내 감정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 같았는데, 내가 두통이 없는지, 눈이 상하지는 않는지 염려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내게 대한 그 관심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노트필기 때 실수하는 것을 빼고는 학교 생활을 잘 하였습니다. 그 무렵 선생님께선 하루에도 몇번씩이나 내 책상 앞에 멈춰 서기도 하셨습니다. 앞줄에 앉은 후 이전보다 잘 볼 수 있게 되었지만, 나는 관심 받는 그 자체를 좋아했습니다.

드디어 진찰받는 날이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내 눈이 몹시 나쁘기 때문에 안경을 쓰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안경을 끼지 않게 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앞줄에 앉으면 잘 보인다고 했습니다. 만약 정말 불편을 느끼게 되면 부모님께 말씀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려댈거라고 울면서 사정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어깨를 두드리면서, 금방 안경에 익숙해질거라고 했습니다. 이제 2학년의 짧은 영광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울면서 뛰쳐 나왔습니다.

안경을 끼던 날, 나는 슬펐습니다. 선생님은 나를 다시 뒷자리로 옮기게 하셨고, 내 책상 앞에 서지도 않으셨습니다. 눈이 내게 달렸다고 아이들이 놀러왔습니다. 게다가 교정시력에 빨리 적응하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돌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후 눈은 괜찮아졌지만 나는 싫었습니다. 차라리 소경이 되고 싶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내 눈이 교정된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내 문제를 눈여겨 보신 것이나 부모님이 그 문제를 듣고 의사에게 데려가신 것, 안경을 맞춰 주신 것, 친절한 의사를 만날 수 있었던 것 등, 내가 얼마나 행운아였던지를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슬프게도 어른이 된 지금에야 나는 안경을 쓰는 것이 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안경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알려라도 돈이 없는 사람, 또 의사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곱살 철 없던 나를 보고 화낼 것입니다. 결코 소경이 되는 것이 더 좋은 게 아닙니다. 소경은 누구나 원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0:46~52을 보면 바디매오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와 마구들의 덜컹거리는 소리, 예수님을 둘러싼 군중들이 수군거림을 들으면서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얼굴을 내리쬐었고, 사람과 등불, 땅의 냄새가 범벅이 된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마도 자기 땀이 흘러 소금맛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 것도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가 수년간 보아온 것은 어두움 뿐이었습니다. 나는 생각해 봅니다. 그가 '소경 바디매오'를 자기 정체성으로 어느 정도로 받아 들였을까요? 자신의 소경됨이 자기 자신 이해에 어느 정도 차지하였을까요? 바디매오가 항상 진정으로 보기를 원하였을까요?

장애인이 된다는 것은 잊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끈직한 고통이 따르는 것만을 보지만, 오랜동안 병에 시달려 본 사람은 보상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이 누워있고 누군가 당신을 돌보고 있던 가장 최근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당신은 불쌍하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따뜻한 음료수와 스프를 가져다 줍니다. 당신이 나올 때까지는 모든 책임과 근심에서 벗어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독립한 성인이지만 누군가에게 주도권을 넘겨주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의지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동안에는 힘든 현실 생활에서 물러나서, 어린아이처럼 보살핌과 돌봄을 받는 기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픈 것은 싫지만, 나름대로 위안도 있다는 걸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바디매오에게는 틀림없이 보상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는 사치스런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 사회는 율법에 의해 장애인의 특수 상황을 인정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제금을 내는 종교적 의무가 있었는데 바디매오는 그들이 주는 돈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일할 수도 없었고 아무도 그에게 일할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소경이었기 때문에 종교적 의무도 매우 제한적이었을 겁니다. 길가에서 온종일을 보내면서 가장 먼저 새로운 뉴스를 듣고, 행인들에게 구제금을 요청할 수도 있었으며, 누가 하기 싫은 일을 시키려고 하면 자신의 장애 정도를 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디매오는 분명 소경의 상태에 익숙해져서 이점들도 발견하였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경됨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그것을 포기하였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셨는데 제자들 뿐 아니라 많은 군중들도 따랐습니다. 바디매오는 여리고성 밖 길에 앉아 있었는데 멀리서 큰 무리가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지 알아 보려고 행인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그 분이 그

유명한 치유자시요 거룩한 분이심을 알았을 때, 바디매오가 그 분에게 도와 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망설였을까요?

혹은 자신의 간청대로 눈을 뜨게 되는 것을 염려하였을까요?

아니면 눈을 뜨지 못하게 될 것을 걱정했을까요? 예수님 그 분이 가까이 오심을 듣고 바디매오는 자신의 딜레마를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즉시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붙잡히 여기소서!” 무리와 제자들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붙잡히 여기소서.” 그런데 놀랍게도 무서워하고 있는 바디매오에게 와서 예수께서 자기를 데려오라 말씀하신다고 전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가 걸옷을 벗고 벌떡 일어났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바디매오는 비록 보지는 못하지만, 머리를 두르고 있는 것을 벗고서 치유자를 만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고 예수께서 물으시자 그는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어쨌든 그는 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즉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소경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은 예루살렘을 향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종려나무를 흔드는 군중들의 환호와 성전에서의 대립과 마지막 만찬이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은 체포와 굴욕과 고난과 죽음이 있는 길입니다. 마침내는 영광으로 가는 길입니다. 바디매오는 이제 그 길을 따라감으로 소경일 때는 결코 상상도 못했던 삶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눈을 떠서 제자가 되는 길로 예수님을 따라 갔습니다.

가련한 소경 거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단지 한 소경의 눈을 고쳐 주신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먼저 보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신 것, 예수께서 고쳐 주실 것을 소망하게 하신 것, 그리고 소경으로서의 잇점을 포기하게 하신 것 등,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예수께서 지나실 때 바디매오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도 있었습니까. 사람들의 제재를 받고 순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매오는 계속 소리치는 용기와 일어나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용기를 은혜로 받았습니다. 소경의 상태에 안주하고 있던 그가 광명한 세계의 경이로움과 즐거움을 맞이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 등장인물 중 우리는 누구와 닮았습니까?

어쨌면, 우리는 군중들과 같습니다. 마음 속에서는 자비를 간구하는 소리가 솟구쳐 오르는데, 예수님 만큼이나 바쁜 다른 사람들을 귀찮게 하지는 않으려 합니다(즉, 말하려 않는다-역주). 또 다르게 보면, 우리가 바디매오를 데리러 간 제자들과 같습니다. 주님의 심부름을 기꺼이 순종할 의지가 있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 주님이 어떤 분이며 정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분명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바디매오와도 너무나 흡사합니다. 영적으로 소경이요, 믿음과 이해와 소망과 평화 등, 모든 성령의 은사를 따져보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은사가 우리의 삶에 가져올 많은 변화를 두려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마음과 더 이상 소경이 되지 않으려는 용기를 주시기를 기원합니다.